

2021년 4월 1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촌여성정책팀 팀 장 오미란(044-201-1565), 사무관 정재균(1569) / 제공일: 4월 15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2021년도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개시

-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역량 및 정책 활용도 제고 기대-

《 주 요 내 용 》

- 농식품부·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을 4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
- 현장농업인의 호평 및 여성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금년 교육대상을 960개 마을, 9,600명으로 확대
- 공모를 통해 선정한 8개 기관에서 전문강사를 마을에 파견,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소개 및 농작업 편이장비 실습 진행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4.19(월)부터 전국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여건개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본 과정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교육기관의 전문강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각종 농작업 편이장비의 사용법을 실습하는 2시간 내외의 과정으로
- 작년에 신설된 이후 120개 마을, 3,600명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, 참가자의 호평 및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올해 960개 마을, 9,6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.

□ 농식품부는 금년 교육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면·발표심사를 통해 교육기관 8개소*를 선정하였으며

* (선정기관) 흥성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, 공주여성농업인센터,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
경남연합, 전북여성농민회연합,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, 광주전남여성농민연합,
부안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, 부여군여성농민회

○ 3.29(월)에는 교육에 참여하는 강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실시하여, 주요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법을 시연하고 작년도 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

□ 올해 영농여건개선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(mafra.go.kr/woman) 또는 농업교육 정보포털 누리집(agriedu.net)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

○ 기타 교육관련 사항은 전화(044-861-8824)로도 문의할 수 있다.

□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“이번에 확대되는 영농 여건개선교육은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증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며

○ “작년에 이어 교육중에 발굴된 여성농업인의 다양한 농사 아이디어는 별도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(10.15)에서 시상하고,

○ 다양한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발·운영하여 농촌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겠다”라고 밝혔다

참고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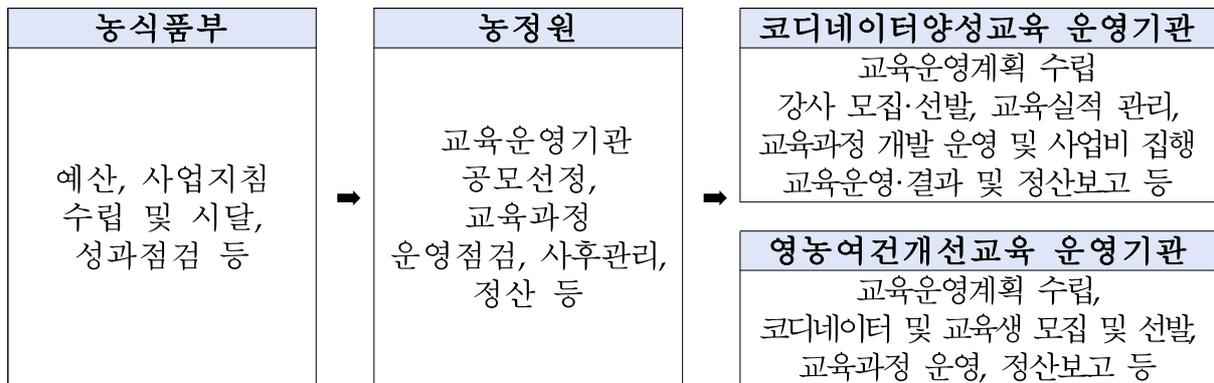
'21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추진개요

□ 추진개요

- (추진목적) ①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정보 전달을 통한 지원대상확대 및 효율성 제고, ②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
- (주요내용) 농작업 편이장비 소개 및 사용법 실습, 부처·지자체별 여성정책 개요 및 신청·활용방안 소개
- (추진기간) '21.4.~12.
- (운영주체) 여성농업인단체·기관·공동체 등 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이 가능한 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
- (소요예산) 300백만원(민간경상보조, 국비 100%)

* (사업분류) 농업농촌교육훈련/여성농업인역량강화/여성농업인교육(경영인력과 내내역사업)

<사업추진체계>



□ 운영과정 : 2개 과정(①코디네이터 양성교육, ②영농여건개선교육)

- ① (코디네이터양성) 영농여건개선교육 담당 강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고 강사별 편차 최소화(3.29)
- ② (영농여건개선)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교육운영기관(8개소)을 통해 여성농업인지원정책·편이장비 사용법 교육(960개마을, 9,600명)

□ 주요일정 및 향후계획

- (주요일정) 계획수립(1월) → 교육기관 공모·선정(2월) → 코디네이터 양성교육(3월) → 영농여건개선교육 운영(4월~11월) → 결과보고(12월)
- (우수사례) 운영우수사례는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(10월)에서 소개 및 시상, 워크숍·성과평가회에서 기관별 노하우도 상시 공유